

## 2015년도 추경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심사평

본 심사평은 심의위원의 심사평을 취합하여 정리한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 □ 연극 분야 심사평

이번 순회사업에서는 총 277건이 신청되어 122건이 선정되었다.

선정은 우선적으로 지역을 배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수도권 76건, 비수도권 46건이 1차로 확정하였다.

심의기준은 사업 프로그램의 작품성(20%),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적합성(30%), 파급효과(30%), 사업수행역량(2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단체가 수혜를 많이 받은 경우보다도 수혜를 받지 못한 단체를 우선시하여 선정하려 노력하였다.

선정된 단체는 많은 지역에 좋은 공연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 □ 무용 분야 심사평

2015년 소외계층문화사업 공모 지원 단체는 총 37단체 중 18개 단체를 1차로 선정하였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수도권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 내용과 실적이 인정되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적극 검토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현장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토대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관객 대상 파악이 제대로 진행되었는가와 그에 걸맞는 프로그램 개발 노력 여부를 살펴보았다.

서울을 비롯하여 수도권 지역 중심 활동 단체의 경우 각 단체의 역량과 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수준 있고 예술성 높은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가능성을 중점 검토하였다. 또한 사업 유형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 정서적 교류, 예술성 함양, 새로운 경험이 가능한 단체를 우선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학교순회 사업의 경우, 교육적 목적과 예술적 수준을 동시에 고려함과 동시에 대중적이고도 이해하기 쉬운 장르인 발레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 □ 음악 분야 심사평

2015년도 추경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1차 심사 음악분야는 총 204건의 지원신청사업 중 93건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선정의 기준은 연주단체의 수월성과 수요처의 프로그램 기대에 따른 성공적 연주회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평가하였으며, 단체의 사업역량 및 행정적 사무 처리의 안정적 수행을 참고하여 평가하였다.

## □ 전통예술 분야 심사평

이번 심의에서는(전통분야) 총 166개 단체 중에서 82개 단체를 1차로 선정하였으며, 이 중 수도권 단체가 38개, 비수도권 단체가 44개이다.

심의기준은 단체 수행능력과 예술성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되 기존에 이미 많은 공적기금을 수혜 받았거나, 서울 중앙무대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인정받은 단체들에 앞서서 지방에서 활동하거나 젊은 신진세대의 활동력이 있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였다.

많은 단체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신청을 했으나 지역 예술 발전과 메

르스 여파에 따른 공연예술 침체 분위기 반전을 위한 활동을 배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 다원예술/예술일반 분야 심사평

메르스 피해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 취지에 따라 먼저 다음 내용을 고려해 심의를 추진하였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경우 우선 고려를 했으나, 사업 프로그램 등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프로그램 추진 실적이 거의 없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힘든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올해 문예진흥기금을 포함 공적 지원의 수혜 경험이 적은 단체들에 대해서도 우선 고려해서 심의를 했으나 사업유형(사회복지시설, 농산어촌, 학교, 주민자치센터, 다중집합시설)의 관람객, 추진 환경 등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신청의 경우는 1차 심의에서 제외하고 진행하였다.

그 외, 단체의 성격과 지원의 기획 의도, 프로그램의 질적 평가, 공연 순회대상처와의 적합성,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 여부, 사업 효과 등을 주요안점으로 두고 심의를 진행하였다.

## □ 통합심사평

2차 통합 심의에서는 1차 심의에 선정된 418건과 문학16건 및 시각예술 8건을 포함한 442건 사업 중 335건을 선정하였다. 유형별로는 사회복지 시설 순회사업 70건, 농산어촌 순회사업 29건, 주민자치센터 순회사업 24건, 학교순회사업 176건, 다중집합시설기획공연이 36건이다.

심의는 개별사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채점 전에 객관적인 정보 공유 및 토론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하였으며, 수도권 이외 지역의 문화에

술단체를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더불어 장르 간의 고른 안배 역시 심의에 반영하였다.

동일한 (또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예술적 역량의 단체 가운데 지역단체를 우선으로 한만큼 공연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유형별 사업에 대한 이해와 대상을 고려한 공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015년 추경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심의위원 일동